

## 오늘의 나, 과거의 나

김성훈/생명의전화 상담부장

살다가 보면 '아!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때는 왜 그렇게 못했는지 자신의 우둔함을 한탄하게도 된다.

과거란 참 묘한 것으로 어떤 부분은 '추억'이라하여 아름다운 것으로 새겨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후회'라하여 잘못된 오점으로 기억되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여하튼 그 과거가 오늘을 있게 한 주춧돌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하나 분명한 것은 과거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후회해도 오늘의 내가 변할 수 없음이라는 뜻이라 하겠다. 단지 오늘의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내일은 저렇게 변화하여 새로와지리라 다짐하는 거울의 역할을 위해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리라.

모든 일에는 다 그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면 내일 분명 후회하게 되고 또 그 다음의 내일을 위해서는 몇 갑절의 노력이 소모될 것이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이라고 항변하는 청소년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시키지 못해 찢찢했지만, 그들이 자라서 '그래,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닌지 모르지만 인생의 큰 부분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후회하게 될

때가 분명 있다는 것은 대다수가 경험한 일이지 않은가.

그러니 그 때를 알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 때라는 것이 꼭 한참을 지난 다음에야 감지되니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시작해도 늦지않다'는 케번이 우리를 위로하는 지도 모르겠다. 늦은 건 늦은 것이지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만, 바로 늦은 그때라도 그것을 실행한 사람은 좀 고생은 되었어도 후에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기대되기에 하는 이야기리라. 어쩌면 후회나 반성이 아니고 지레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나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또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에 매달려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으니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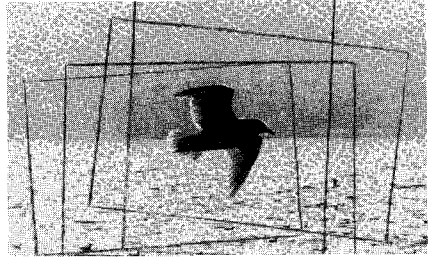
종종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확실히 파악치도 못하여 다만 몽둥그려 내게 무슨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무엇때문인지 모르겠다는 경우도 있다. 또 지금껏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과거의 언제부터 잘못되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의 사람들도 있다. 각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며 주위를 살피거나 그때마다의 자신을 점검할 정황없이 오로지 내쳐, 줄달음쳐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일게다. 무엇인가에 묶여 바른 인식이나 의식을 갖추지 못한 채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삶의 현장에 던져진 때문인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 대체로 나보다는 남의 탓으로 모든 불평 불만을 해소하려든다. 피해의식으로 심한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며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사람도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과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수없이 많은 경우를 다음 네가지형으로 분류하여 생각해 보았다.

첫째, 만년 과장형이다.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는 경우들이겠다.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희망이 없고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때 이랬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가 가장 많다. 진작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야 하는데, 그때 잘했으면 지금쯤 이사는 됐을 텐데, 좀 더 공부하거나 무슨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들걸 하는 후회는 많으나 그것을 거울 삼는 반성으로,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변화해보려는 의지나 용기를 보이지 못한다. 이 나이에 뭘 어떻게, 너무 늦어서 그냥 이대로 있는게 더 낫겠지, 해봤자지 하는 식으로 자위하고 만다. 그러면서도 내일에 대한 불안을 항상 갖고 산다.

둘째는 노처녀형이다. 이젠 맞선보기조차 치킨데다 '그 때 그 사람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 때 그냥 눈 질끈 감고 결혼해 버릴걸' 또는 '홍, 당신하고 하느니 차라리 혼자살지'하며 과거에 비교해서 사는 스타일이다. 지금까지 본중에 가장 괜찮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만큼 되야 된다는 식의 사고에 묻혀 있다. 그 때가 좋았지, 그 시절이 그렇다는 말을 자주한다. 그렇다고 과거에 좋은 결과를 이루어 놓은 것도 아니다. 다만 지금의 나를 스스로 위로하고 자신을 좀 더 후하게 평가하려는 심정이라. 그런데 과거는, 그렇지만 오늘의 난제들은 어찌할 것인가.

셋째는 부동산 투기로 부자된 아주머니형이다. 열심히 머리써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자식에게 온갖 정성들인다고 했는데, 아무 보람도 없이 있는대로 속을 썩인다고 속상해하는 형이다. 해달라는 것 다 해주고 남보다 더 좋은 것 입히고 먹이고, 또 한 과목에 몇백만원한다는 과외도 아깝지 않게 시켰는데, 대학은 고사하고 말썽만 피우는데 어찌면 좋겠냐는 푸념을 한다. 무엇이 잘못되어 이렇게 됐는지 전혀 알지를 못한다.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자식에게 가르친게 없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

넷째는 남편 탓만 하는 부인형이다.

순교자 콤플렉스가 동반된 경우도 있겠다. 허리띠 졸라매고 안먹고 안입고 하여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되니 판짓을 한다고 분해한다. 지금 이나마 살게 된 게 누구때문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고 원통해 한다. 처음 만났을 땐 쥐빨도 없다가 이제 내집이나마 마련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되니 배가 불러 그렇다고 속상해 한다. 그렇게 속상하고 화가나고 원통하니 온통 미운 사람뿐이다. 자기 속사정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은 다 밉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재평가하지 못한다. 온통 다 남편의 잘못만 있고 나는 희생당한 셈일 뿐이다.

오늘의 나는 과거로부터 탄생된 것이다. 과거는 조금도 속이지 않는다. 내가 한만큼 오늘의 결과가 있을 뿐이다. 행운이 따랐다는 말은 도박이나 있는 말이다. 행운은 과거의 내가 이룬 댓가이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어디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마는,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후회한다. 후회를 적게 하는 만큼 나는 행복해질게다. 후회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 후회는 반드시 내 일을 위한 반성이 되어야겠다.

남도 아니고 나의 잘못을 바로 깨닫고 우선 나부터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 때때로 나를 뒤돌아보고 나를 올바르게 평가하여 내가 있을 자리에 있고자 하는 나의 주체성도 중요하다. 내가 있을 곳에 있고, 해야할 때 머뭇거리기 없을 때 남들도 나를 보고 함께 변화될 것임이 들림없다. 卍

● 새로운 책 ●



● 바바리코트를 뒤집어 입은 남자

진실로 인간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국은 누구든 삶의 모습은 비슷하여 자신을 뒤돌아 볼땐 회한 비슷한 것을 느낄것이다. 그 어떤 소설보다 더 소설적이기를 고집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차라리 인간 “이진수”를 보는 느낌을 갖는다. 연극인 “이진수” 그의 숨은 재주를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러므로 그의 소설 또한 그런 모습으로 남으리라 확신한다.

작가정신사 / 신국판 276쪽 / 값 3,800원

● 먼길을 혼자 떠날 수 있는 사랑

제 9회 일봉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오영석씨의 소설집 “먼 길을 혼자 떠날 수 있는 사랑”이 성인문화사에서 출간되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내고 그 아내가 떠나간 그 병원에서 네번동 안이나 입원한 그가 중환을 무릅쓰고 저 세상의 아내에게 부치는 사연이 작품속에 스며 읽는 이의 마음을 쩡하게 만든다.

성인문화사 / 신국판 324쪽 / 값 3,800원